

경남신문 2025. 7. 17

농어촌공사 밀양지사, 청년농 소통간담회 개최

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(지사장 김재홍)는 지사 소회의실에서 청년농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. 이번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·공사 담당자 등 총 9명이 참석해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듣고, 청년농업인 농지 지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다. 또 농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간담회 시간도 함께 마



련됐다. 밀양지사는 지난해 878농가에 271ha를 지원하며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이끌고 있다. 고비룡 기자

농어촌공사 밀양지사, 청년농 지역별 소통협의체 간담회 개최

안철이 기자 승인 2025.03.14 18:35

청년농 의견수렴 및 농지지원사업 강화 방안 모색



농어촌공사 밀양지사, 청년농 지역별 소통협의체 간담회 개최 <사진=농어촌공사 밀양지사>

[KNS뉴스통신=안철이 기자]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(지사장 김재홍)는 지난 13일 밀양지사 소회의실에서 청년농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.

이번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공사 담당자 등 총 9명이 참석하여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듣고,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다. 또한 농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간담회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.

밀양지사는 농지은행의 「맞춤형농지지원사업」 및 「농지임대숙탁사업」을 통해 지난해 878농가에 271ha를 지원하여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이끌고 있다.

또한 올해부터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선임대후매도사업,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등 청년농업인을 위한 농지지원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농지 확보 등 초기자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한편 김재홍 지사장은 "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이 성공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."라며 "이번 소통간담회를 계기로 농업의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."라고 말했다.

또 농지은행사업과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(www.fbo.or.kr) 또는 농지은행 상담센터(1577-7770)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.

저작권자 ©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안철이 기자

농어촌공사 밀양지사, 청년농 지역별 소통협의체 간담회 개최

✎ 장현호 기자 | ⓒ 승인 2025.03.14 19:59

청년농 의견수렴 및 농지지원사업 강화 방안 모색



밀양지사 소회의실에서 청년농 소통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.(사진제공=한국농어촌공사밀양지사)

[밀양=내외뉴스통신] 장현호 기자

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(지사장 김재홍)는 3월 13일(목), 밀양지사 소회의실에서 청년농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.

이번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공사 담당자 등 총 9명이 참석하여 청년 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듣고,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 했다. 또한 농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간담회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.

밀양지사는 농지은행의 「맞춤형농지지원사업」 및 「농지임대수탁사업」을 통해 지난해 878농가 에 271ha를 지원하며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이끌고 있다. 또한 올해부터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선임대 후매도사업,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등 청년농업인을 위한 농지지원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농지 확보 등 초기자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김재홍 지사장은 “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이 성공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.”라며 “이번 소통간담회를 계기로 농업의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농지은행사업과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 또는 농지은행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 다.

janghh6204@hanmail.net



장현호 기자 janghh6204@hanmail.net

농어촌공사 밀양지사, 청년농 지역별 소통협의체 간담회 개최

✎ 장세권 기자 | ⓒ 승인 2025.03.17 10:20

청년농 의견수렴 및 농지지원사업 강화 방안 모색



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(지사장 김재홍)는 밀양지사 소회의실에서 청년농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.

이번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공사 담당자 등 총 9명이 참석해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듣고,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다. 또한 농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간담회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.

밀양지사는 농지은행의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및 농지임대수탁사업 을 통해 지난해 878농가에 271ha 를 지원하며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이끌고 있다. 또한 올해부터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선임대후매도사업,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등 청년농업인을 위한 농지지원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농지 확보 등 초기자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김재홍 지사장은 “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이 성공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”며 “이번 소통간담회를 계기로 농업의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”고 말했다.



장세권 기자 jsg5833@newsgn.com